



‘장수 리스크’
자산유형에 따른
재테크 전략은?
03

metro[®]

Life

K-푸드
중동·유럽
공략전 돌입
L2



모로코 사막에 심은 배움의 씨앗… “교육으로 사랑 실천했죠”



새벽을 여는 사람들

유스피아 홍 유 란 대표

7년째 모로코의 취약지역 교육 사업에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한국인이 있다. 홍유란 유스피아 대표다. 그는 “세상을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바꾸는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이 교육”이라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선택했다.

홍유란 대표는 젊음과 청춘의 ‘유스(Youth)’와 이상향 ‘유토피아(Utopia)’를 따서 지은 단체 ‘유스피아’를 이끈다. 홍 대표는 교직 7년 차 때 마침표를 찍고 모로코로 떠났다. 홍 대표가 2019년 세계여행 도중 사하라 사막에서 만난 모로코 아이들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이 ‘유스피아’로 실현된 지도 7년째다.

◆“교육을 통한 더 행복한 사회”

유스피아는 교육을 통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주로 도서관 사업, 스포츠 교육, 여성 역량강화, 지역사회 지원사업에 중점을 둔다.

모로코는 서·북쪽 해안선이 대서양·지중해와 접하고 중부엔 아틀라스 산맥이, 남부엔 사하라 사막이 있다. 대도시는 항구나 교역의 중심지를 따라 발달했으며 이는 대도시와 지방 간 교육 격차로 이어졌다.

홍 대표는 “모로코의 교육 체계는 도시와 지방 간 격차가 매우 크다. 도시에서는 사립학교나 국제학교를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농촌·산간 지역으로 갈수록 교사·교실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교육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농촌·산간 지역 많은 학교가 2부제로 운영이 되거나 복수 학년이 같은 교실을 사용하고 교사 부족 등의 문제로 예체능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 교실이 부족해 2개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일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균질하지 않은 모로코의 교육 체계에 천재지변까지 겹쳐 현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홍 대표는 “모로코는 15세 아동의 최소 읽기 능력을 가진 비율이 27%에 그친다. OECD 평균은 77%다. 농촌 여학생의 하급 중등 진학률은 44%(도시 82%)로 교육 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2023년 발생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아틀라스 산간 지역의 교육 인프라는 대부분 붕괴됐다. 약 10만 명의 아동·청소년이 교육 중단을 겪게 만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교실은 무너졌고, 수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 더더욱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마을이 많고, 이는 더 심각한 지역별 교육 격차의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체감하는 변화, 교육이 주는 행복

홍 대표는 세계여행 중 모로코에서 만난 아이들과 비웃방울을 붙고 같이 놀았다고 한다. 평상시 아이들이 학교에 갔으면 홍 대표를 만나지도 못했을 일이다. ‘공교육의 부재’ 속에 시간을 때우던 아이들을 위해 홍 대표가 팔을 걷어붙였다.

2019년 4월 열흘 간에 모로코 사하라 지역 방문 이후 홍 대표는 인생의 목표였던 세계여행을 잠시 멈췄다. 다음 여행지였던 포르투갈에서 각종 교구



모로코 취약지역에서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는 홍유란 유스피아 대표가 아이와 손뼉을 치고 있다.

세계여행 중 모로코 공교육의 부재 느껴 여행 접고 교육 위한 ‘유스피아’ 설립·활동

모로코 지역, 도시-지방간 교육격차 매우 커 2023년 지진 피해로 산간지역 교육 붕괴도

사하라 지역 학부모와 협력해 도서관 조성 자유로운 신체 활동 위해 ‘축구 교실’ 열어

교육 통해 자유·존중 등 행복 찾을 수 있어 운영 위해 후원 필요… 함께 변화 만들고파

를 사고 한국에서 받은 후원물품을 갖고 다시 모로코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유스피아는 도서관을 만들고 운영한다. 2022년엔 모로코 사하라 사막지역 하실라비드(Hassilabi ed), 2024년에 산악지역 아즈루(Azrou)에 도서관을 조성했다. 넘치는 독서 수요에 올해 하실라비드 지역 초등학교에도 도서관을 조성했다. 마을에 도서관이 생기고 책장에 책이 꽂히면서 변화는 나타났다.

홍 대표는 “처음에는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책을 접해본 적 없어 그림만 보고 책장을 빠르게 넘기던 아이들이 이제는 제가 책을 건네지 않아도 조용한 자리를 찾아 혼자 책을 읽기도 한다”며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지만 과연 아이들이 책을 얹전히 읽겠느냐며 반신반의했던 학부모조차 이제는 유스피아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됐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사하라 사막에 처음 열었던 도서관은 공간이 작아 한번에 30여 명의 아이들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도서관에 오고자 하는 아이들은 70명도



모로코 남부 사하라 사막 지역인 하실라비드 소재 초등학교에 조성한 도서관.



하실라비드의 축구장 ‘미니 풋’에서 아이들이 축구하고 있는 모습. /유스피아

넘었다. 그래서 그룹을 나눠 격일로 오게하기도 했다”며 “결국, 지역 학부모 협회와 협력해 사하라 하실라비드 지역 내 유일한 학교인 초등학교 내에 도서관을 조성하게 됐다. 이제는 400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수업시간을 통해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스피아는 올해 12월 앤미테르 마을 도서관 조성, 마라케시 인근 지진 피해 지역 도서관 확장 사업, 아즈루 도서관 컴퓨터실 조성 및 한국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계획 중이다.

유스피아는 스포츠 교육에도 적극적이다.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모로코의 대도시와 달리 홍 대표가 같이 생활한 사막이나 산맥 지역의 아이들은 이슬람 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신체활동이 자유롭지 못했다고 한다. 홍 대표는 “여자아이들은 지역에 있는 축구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또한 교사 부족 등의 문제로 예체능 수업이 없어 제대로 된 신체활동의 기회가 전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신체 활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몸도 정신도 오롯이 설 수 있다는 생각에, 아이들이 자라나야 할 때 제대로 뛰놀며 자라나게 하고 싶다는 생각에 하실라비드 지역 사회와 담당자분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축구장을 빌리게 됐고, 2025년 2월부터 매주 축구 교실을 열고 있다”고 했다.

축구로 에너지를 풀어낼 수 있게 된 아이들의 의지는 불타올랐고, 축구 교실 2시간 전부터 경기장에 나와 기다린 학생도 있다고 했다. 현지인 코치도 선임했으며 여자·남자 아이 모두 축구장에서 뛰노는 환경과 문화가 자리잡혔다고 했다. 이를 지켜보던 지역 축구협회도 유스피아의 스포츠 교육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올해는 정식 예비 코치 양성 과정 운영과 여자 유소년 축구단 창단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홍 대표는 “행복은 자유, 존중, 꿈, 감사라는 네 가지 가치로 설명할 수 있다”며 “교육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 각자의 삶과 꿈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며 ‘존중’을 배우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꿈’을 키운다. 그리고 그 배움의 기회를 나눌 수 있음에,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 또한 교육을 통해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요청 늘어나지만 모두 소화하기 어려워”

홍 대표의 아버지는 늘 책을 읽었고, 홍 대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러러봤다고 한다. ‘평생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나’는 아버지의 물음에 홍 대표는 “사랑이라는 가치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답했다.

한평생 제자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직업으로 ‘교사’를 택했고 최선 속에 보람도 느꼈다. 하지만, ‘입시’라는 하나의 목표로 짜인 체계에서 사랑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너무 좁았나 보다. 그리고 홍 대표는 학교 밖 세상으로 나갔다.

홍 대표와 그를 돕는 사람들의 열정으로 유스피아에 지원을 요청하는 마을이 늘고 있다. 홍 대표는 “모든 요청을 다 소화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털어놨다. 홍 대표는 “교육 사업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지속성을 담보할 구조를 만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며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더 많은 후원자분을 모시고 싶다”고 강조했다.

유스피아는 올해 창립총회를 열고 비영리임의단체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했다. 유스피아가 싹을 틔운 교육 사업이 사랑의 힘으로, 교육의 힘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 관심 두고 응원해 본다.

/박태훈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역도 박혜정, 허리 통증 딛고 2년 만에 세계선수권 우승…송영환 3위 /사진 뉴시스

▲피겨 이혜인, 조지아 대회 동메달…2주 연속 국제대회 입상

▲음바페, 발목 다쳐 프랑스 국가대표팀 이탈…부상 악화 우려

▲K리그1 전북 U-18, 네덜란드 PSV 아인트호벤서 축구 연수

▲A매치 기간에 MLS 댄 메시…애틀랜타전 멀티골 ‘득점 선두’

▲프로농구 KCC, 현대모비스 제압…정관장은 SK 놀러